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Metro (17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acd=2014111700059>

상의 "한국 노동생산성 낮음에도 임금 높다"

박성훈 기자(zen@) 최종수정 : 2014-11-17 11:01:03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으면서 실질 임금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7 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 인당 GDP 가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더 짧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서구 선진국이 아닌 유사한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수의

국제자료를 통해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을 비교했고 항목별로 유사한 결과를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터를 보면 '2011 년 기준 홍콩(2344 시간), 싱가포르(2287 시간), 한국(2193 시간), 대만(2144 시간), 일본(1706 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 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 시간), 한국(2289 시간), 일본(1727 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2013 년 기준 1 인당 GDP 가 각각 5 만 5182 달러와 3 만 7955 달러로 한국(2 만 5975 달러)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대만은 구매력 기준 소득(한국 3 만 3791 달러 대 대만 4 만 1539 달러)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근로시간은 비슷했다.

지난 30 여년간 근로시간 감소추세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가팔랐다.

한국은 1980년~2011년 사이 근로시간이 연평균 18.4% 감소해 일본(19.6%)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 대만은 16.9%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3.6%와 0.6% 감소에 그쳤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우위에 있고 이어 대만, 일본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4% 수준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싱가포르, 홍콩이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 대만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보다 높았다.

복수의 국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낮지만 홍콩, 대만보다 높아 경쟁국 중 중간수준이었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아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